

勸學歌



[해제]

이 가사는 한국가사문학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경세가(警世歌)』라는 가집에 실려 있는 교훈가사(敎訓歌辭)이다. 작자와 제작 연대가 밝혀 있지 않으나, 학계에 이미 알려진 총 102행으로 된 이기원(李基遠, 1808~1890)의 <권학가라>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면 기존의 권학가를 바탕으로 하였으되, 가사 행구(行句)의 전환 내지는 어구(語句)의 첨삭을 통해 필사한 노래로 추측된다. 즉, 이기원의 가사는 순 한글체임에 대하여 이는 한문 어구를 대부분 한자로 전환하여 표기한 것으로 상당 부분의 조사구(措辭句)에 새로운 면을 보이고 있는 점이 서로 다르다. 이곳 『경세(警世歌)』에 필사된 <권학가>는 총 99행 198구 구성의 노래이다. 구를 형성하는 음수율(音數律)은 대부분이 4.4조(총 166구) 구성이요, 간혹 3.4조(총 28구)와 그 밖의 자수율(字數律) 혼합으로 전개되어 있다. 가사의 내용은 제목이 뜻하는 대로 학문을 권하는 노래이다. 인생의 행(幸).불행(不幸)의 기준을 글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의 차이에 두고, 양자를 대조적으로 노래한 것이 이 가사의 특색이다. 전자는 과거급제로부터 시작하여 입신양명으로 출세하고 삶의 영광을 누리는 경우임에 대하여, 후자에서는 고난의 삶에 들어 인생 험로를 겪게 되는 처절한 생애를 제시하여, 인생은 배우고 못 배움에 따라 일룡일저(一龍一豬)로 극명하게 달라짐을 교시한 내용이라 하겠다. 아울러 작품의 서술 순을 보면 ① 글 배움의 중요성을 역설하고(총 8행), ② 역사상 대표적인 독서가(讀書家)의 예를 들어 글 읽기를 깨우치고(총 22행), ③ 학문하는 데에 중요시할 서책의 열거(총 8행), ④ 과거급제의 영광과 그에 대한 치하(총 9행), ⑤ 갖가지의 출사(出仕)와 치사(致仕) 후의 대접(총 20행), ⑥ 글 못한 자에 대한 가련한 생애 열거(총 27행), ⑦ 배우고 못 배운 자의 다름을 지적하여 창랑자취(滄浪自取)임을 각성시키는 것(총 5행)으로 마무리 짓는다. 이 가사는 "靑春少年兒孩들아이내訓誡드러셔라"로 시작되는 가사이다

[원문]

小人親故 알기습다 죽자사자 하난양이
 巧言令色 爲先하고 阿諛求容 저일이라
 脅肩諂笑 저벗보소 笑中有刀 뉘알일리
 솔갓치 만난버시 맛이야 좃켄만은
 마음안에 굿푼일은 親舊라도 情談하여
 義盡情疎 달은날에 大禍將至 念慮로다
 楚越가튼 肝膽으로 管鮑가 티친한달
 一生談笑 外面이오 千里山外 中心이라
 이벗보고 저벗諧談 그사람도 벗시든가
 벗시라 親차하면 미들신자 바게업다
 옛사람의 親舊보소 이제날 알아두새
 友也者난 友德이니 以友輔仁 하자할제
 貴하고 挾貴하며 나만타고 挾長할가
 漢之相國 宋仲子은 貧賤之交 안이잇고
 行年五十 孔文舉난 忘年之友 참벗시오
 孫杵臼의 地下友난 刎頸之交 참벗시다
 어지다 晁平仲은 善與人交 平生이라
 久而敬之 ㅎ다하니 朋友有信 그뿐이다

勸學歌

靑春少年 兒孩들아 이내訓誡 드러서라
人間世上 조한거사 文學밧게 쏘잇난야
金銀玉帛 重寶라도 費用하면 업서지고
明珠文[∞] 奇貨라도 逢賊하면 업건이와
니몸에 갈문글은 肺腹間에 갈마스니
費用한달 업서지며 逢賊한달 일을소냐
조한田畝 願치말나 萬鍾祿이 글에잇다
조한家舍 願치말라 黃金屋이 글에잇다
글을一精 잘할진딘 富貴利達 여드갈리
刺股讀書 蘇季子도 六國相이 되야잇고
家貧好讀 陳孺子도 萬戶侯을 封히시니
글갓치 조흔거슨 天下에 업난이라
萬卷書을 誦誦한달 몸이엇지 무거우며
百家語을 總歷한달 비가엇지 불을손냐
歲月이 如流하야 六驥처로 달러가니
년들 常히 靑春일야 瞬息間에 白髮되야
聰던귀가 먹먹하고 박던눈이 캄캄하며
글을一精 보자한들 엇지能히 보와니며
글을一精 듯자한들 엇지能히 들을손냐
年富力強 兒該들아 無思無慮 兒該들아
네精神 專一할제 착실리 일거셔라
네血氣 壯盛할제 勤作히 지여셔라
大禹갓탄 聖人도 寸陰을 앗것스니
너으갓탄 衆人이 아分陰을 虛送하야
六七歲에入學하야 嚴한先生 차자가셔
글잇기을 실어말고 杼杼기을 실어마라
一年三百 六十日에 日課항허 瘠할소냐
萬古大聖 孔夫子도 韋編이 三絶하고
大宋文章 司馬光도 圓枕不寐 ㅎ엇스니
너의갓탄 兒該들의 엇지能히 勤勞업시 글을하야
史略通鑑 빈온後에 孟子論語 익난이라
中庸大學 빈온後에 毛詩尙書 익난이라
周易禮記 春秋傳과 左傳綱目 莊馬史며
楚詞唐音 長短篇과 李白杜詩 五七言을
卷卷히 외와나며 字字히 搜覓하야

明鏡히 通達호고 繼晷히 精熟호여
 句法지어 詩賦表며 經義辯答 義疑策은
 水湧山出 盛長호야 巨擘才士 得名호야
 監試壯元 會試壯元 生員進士 偶中호고
 應試及第 謁聖及第 一等人에 崑泰호야
 唱榜謝恩 지닌後에 遊街行樂 단일적에
 紅牌을 擘피들고 御賜花을 밧게긔고
 靑蓋紅蓋 舞童이며 樂妓倡夫 侍輩들은
 長安大道 花柳中에 雙雙으로 지닌가니
 쌍苗聲을 알은호고 三絃聲은 飛振이다
 道傍觀者 幾千人이 無不致賀 所羨호다
 十年燈下 苦悶다가 三日馬頭 榮華로다
 榮親外門 지닌後에 分管撫仕 하을적에
 初入仕도 翰林注書 通淸호야 正言持平
 堂祿호야 校理修撰 堂上호야 承旨參議
 六曹判書 지닌後에 八道監司다 단일적에
 勸馬聲은 挾道호고 吹囉聲은 動地로다
 紗冒冠帶 守令들은 淸수마다 기다리고
 粉白黛綠 美人들은 宿所마다 待遇호고
 美酒佳肴 차담床과 珍羞味饌 진지床은
 食前方丈 헛말이라 衣食萬錢 거의로다
 觀風察僞 ∞∞호고 頌德洋洋 비위두고
 內職으로 進伯호야 柱石大臣 되야스니
 右議政으로 左議政되고 左議政으로 領議政되야
 豐功優劣 廟堂上에 伊傅周召 齊名호야
 奉朝賀 致仕호야 賜几杖 休退호야
 耆老所에 食祿호야 原任大臣 되야스니
 功名도 巨祿호야 富貴도 거지엿다
 江湖林泉 景概존은 山高水高 지여두고
 黃鶯白鷗 끼시되고 明月淸風 任者도야
 良朋嘉客 迎接호고 詩酒琴歌 逍遙로다
 八字도 조컨이와 글字한 흠이로다
 글뭇한 저사람은 그身世 可憐호다
 樵童牧豎 되야스니 六軍丁兵 免할손냐
 負薪汲水 生涯호니 雇奴品軍 免할손냐
 天賦總明 엇다두고 四面牆壁 되야던고
 降衷기藝 엇다두고 山蹊茅塞 되야든고
 言語도 無味호고 面目도 可憎이라

父名祖名 모으거든 戶籍添口 엇지알며
蓬頭亂髮凶한狀兒 弊衣赭汗 추한거동
金笠無恥 단이면서 온갖상일 다할적에
六月벤티 보리치기 비온날 거름지기
그움밤에 물되기 서리아참 괴송죽기
風寒暑熱 不計하고 手足胼胝 지은거시
입救援이 겨우되고 番餞帑이 갈디업다
里丁納丁 달여들어 셈치며 督促하고
檢督風憲 달여들어 가삼치며 恐喝하니
酒物床을 倅辨해야 目前瘡을 免할손냐
어인子息 곤방술은 술갑세 典當하고
剝夫추출 날씩업서 畢竟去納 論報하니
星大갓탄 番差使令 번기갓치 달여들어
이놈저놈 叱咤해야 挈入官庭 추려해야
刑틀동틀 結縛해야 刑杖笞杖 亂打하니
如電若電 劬杖소리 三魂九魂 飛散이라
父母遺體도 重커이와 流血淋漓 可憐하다
遞契錢을 于得해야 卽其時에 免하고
日落西山 저운날에 叩胸痛哭 돌아오니
아참저역 굴문妻子 餓死凍死 거이돈다
誰怨誰咎 하자말로 글못한 타시로다
天生蒸民 ㅎ올적에 有物有則 ㅎ여스니
耳目聰明 ㄴ업스며 虛靈知覺 ㄴ업스리
堯舜盜跖 一般이라 文武禹湯 無間거든
學其不學 所致로서 一龍一猪 現殊하니
滄浪之水 清濁間에 濯纓濯足 自取로다

[현대역]

소인 친구 알기 쉽다 죽자 살자 하는 양이 교언영색(巧言令色)⁹¹ 앞세우고, 아유구용(阿諛求容) 제일이다. 협견도소(脅肩諂笑)⁹²하는 저 벼를 보소, 소중유소(笑中有刀) 누가 알리. 꿀 같이 만난 벼이 맛이야 좋겠지마는, 마음속에 깊은 일을 친구라도 정담(情談)하여, 의리 다하고 정분에 틈이 생긴 다른 날에 큰 재앙 닥쳐올까 염려로다. 초월(楚越)⁹³처럼 원수진 속셈으로 관포(管鮑) 같이 친하고자 한들, 평생의 담소는 외면하고, 천리나 먼 산 밖이 중심이 되리라. 이 벼 보고 저 벼 해당(諧談)⁹⁴이나 그 사람도 벼이든가. 벼이라 하여 친하자면 믿을 신(信)자 밖에 없도다. 옛사람의 친구 보소, 이제는 알아두세. 벼이라 함은 덕을 베풀이니, 이우보인(以友輔仁)⁹⁵하자할 때, 귀하다고 협귀(挾貴)⁹⁶하며, 나이 많다고 어른 위세할까. 한(漢) 나라 재상 송중자(宋仲子)⁹⁷는 빈천한 때의 사귀 잊지 않고, 나이 오십에 공문거(孔文舉)⁹⁸는 망년지우(忘年之友) 참 벼이요. 손저구(孫杵臼)⁹⁹ 지하에서 사귀 벼는 문경지우(勿頸之交) 참 벼이로다.

어질다 안평중(晏平仲)¹⁰⁰은 남과의 사귀를 평생토록 잘 하였네. 오래도록 공경하였다 하니, 벼의 도리 봉우유신(朋友有信) ¹⁰¹그뿐이다.

권학가

청춘소년 아희들아 이내 훈계(訓戒) 들어서라. 인간 세상 좋은 것이야 문학(文學)¹에 또 있느냐. 금은 옥백(金銀玉帛)²중보(重寶)라도 써버리면 없어지고, 명주(明珠)³문(文) 기화(奇貨)라도 도적맞으면 없지만은, 내 몸에 간직한 글은 폐복간(肺腹間)⁴에 간직하였으니, 써버린들 없어지며 도적맞은들 잃을쏘냐. 좋은 전답 원치 말라 만종록(萬鍾祿)⁵이 글에 있다. 좋은 가사(家舍)⁶ 원치 말라 황금옥(黃金屋)이 글에 있다. 글을 오로지 성실하게 잘할진대 부귀와 이달(利達)⁷이 어디가리. 자고독서(刺股讀書)⁸하던 소계자(蘇季子)도 6국의 재상이 되었고, 집은 가난하나 책 읽기를 좋아한 진유자(陳孺子)⁹도 만호후(萬戶侯)¹⁰의 직급을 받았으니, 글같이 좋은 것은 천하에 없느니라.

만권서(萬卷書)¹¹를 모아 외운들 몸이 어찌 무거우며,

백가어(百家語)¹²를 모두 거친들 배가 어찌 부를 것인가.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잘 달리는 육기(六驥)¹³처럼 달려가니,

넌들 항상 청춘이라, 순식간에 백발 되어

총명하던 귀가 멍멍하고 밝던 눈이 캄캄하며,

글을 오로지 성실하게 보자 한들 어찌 능히 보아내며,

글을 오로지 성실하게 듣자한들 어찌 능히 들을쏘냐.

연부 역강(年富力強)¹⁴ 아희들아 무사무려(無思無慮) 아희들아,

네 정신이 전일(專一)¹⁵할 제 착실히 독서하여라.

네 혈기 장성(壯盛)¹⁶할 제 부지런히 글을 지으려무나.

대우(大禹)¹⁷같은 성인도 촌음(寸陰)을 아꼈으니,

너희 같은 일반 사람들이야 분음(分陰)¹⁸을 허송하라.

6,7세에 글방에 들어가되 엄한 선생 찾아가서,

글 읽기를 싫어 말고 매 맞기를 싫어 말라.

1년 3백 60일에 일과를 행여 줄일쏘냐.

만고에 큰 성군 공부자(孔夫子)¹⁹도 위편(韋編)이 삼절(三絶)하고,

대송(大宋)²⁰의 문장가 사마광(司馬光)도, 둥근 베개를 베고 잠자지 않으며 학문하였으니 너의 같은 아

희들이 어찌 능히 부지런한 노력 없이 글을 하랴. 사략(史略)21.통감(通鑑) 배운 뒤에 맹자(孟子).논어(論語)를 익히며, 중용(中庸)22.대학(大學) 배운 후에 모시(毛詩).상서(尙書)를 익히느니라. 주역(周易)23.예기(禮記).춘추전(春秋傳)과 좌전(左傳)24강목(綱目).장마사(莊馬史)며, 초사(楚詞)25.당음(唐音)의 장단편(長短篇)과 이백(李白)26과 두보(杜甫)의 시 5.7언을 권권마다 외와 두며 글자마다 찾아내어 맑은 거울처럼 통달하고 햇빛 좇아 정숙(精熟)27하며, 시문의 구법(句法)28을 익혀 시(詩).부(賦).표(表) 등이며, 경서의 뜻과 변(辯)29에 따른 답(答), 그리고 의(義).의(疑).책(策)등이 수용산출(水湧山出)30한문학에서 문체의 한 가지. ‘분별한다는 뜻’으로, 옳고 그름 또는 참되고 거짓됨을 가리는 목적으로 씌어진 글에 붙임.로 왕성하게 발전함으로써 거벽재사(巨擘才士)31로 득명(得名)하여, 감시 장원(監試壯元)32과 회시(會試)의 장원으로, 생원진사(生員進士)33에 뜻대로 우중(偶中)하고, 응시(應試)에 급제하되 알성급제(謁聖及第)34 일등으로 우뚝하여, 창방(唱榜)에 사은(謝恩)한 후 유가행락(遊街行樂)35 다닐 적에, 홍패(紅牌)36를 높이 들고 어사화(御賜花)를 밖에 꽃고, 청개홍개(靑蓋紅蓋)37를 든 무동(舞童)이며, 악기 창부(樂妓倡夫)38) 등 시중드는 우리들은 장안대도(長安大道)39의 화류(花柳) 중에 쌍쌍으로 지나가니,

삼현(三絃)40 소리 날려 떨치도다. 길 가에서 구경하던 몇 천 명 사람들이 무불치하(無不致賀)41하고 부러워하던 바로다. 십년이나 오래도록 등불 밑에 공부하며 괴롭다가 삼일 마두(三日馬頭)42영화로다. 영친(榮親)43하고 바깥문을 지난 후 분관(分管)하여 벼슬을 좇을 적에 처음 드는 벼슬이라도 한림44주서(翰林注書)요, 통청(通淸)45하여서는 정언 지평(正言持平)이며, 당록(堂錄)46에 올라서는 교리 수찬(校理修撰)의 벼슬이요, 당상(堂上)47에 올라서는 승지 참의(承旨參議)니, 육조판서(六曹判書)48지낸 후에 팔도감사(八道監司)를 다 다닐 적에, 권마성(勸馬聲)49은 도로에 퍼지고, 노래 부르는 소리 대지를 울리도다. 사모관대(紗帽冠帶)50차림의 수령들은 참수(站數)마다 기다리고, 분백대록(粉白黛綠)51으로 단장한 미녀들 숙소마다 기다려 대우하고, 미주가효(美酒佳肴)52의 차담상(茶啖床)과 진수미찬(珍羞味饌)의 진지상은 식전 방장(食前方丈)53이 현 말이라, 의복과 음식에 만전(萬錢)이 거의로다. 관풍찰위(觀風察僞)54 ∞ 하고, 송덕양양(頌德洋洋) 비위두고, 내직(內職)55으로 백작(伯爵)에 나아가서 주석대신(柱石大臣)이 되고나면, 우의정(右議政)56에서 좌의정(左議政)에 오르고, 좌의정(左議政)에서 영의정(領議政)57에 올라, 풍공우열(豐功優劣)58로 묘당(廟堂)에서 중국의 이름난 재상 이부(伊傅)와 주소(周召)처럼 명예를 같이하다가,

봉조하(奉朝賀)59로 벼슬을 그만두고,

사계장(賜几杖)60으로 휴퇴(休退)해 있으면서,

기로소(耆老所)61에에서 식록(食祿)하야 원임대신(原任大臣) 되고나면, 공명도 큰 복이라, 부귀도 그 없었다. 강호 임천(江湖林泉)62의 경개(景概), 산수의 좋은 경치 이루어놓고, 황앵(黃鶯)63과 백구(白鷗)의 깃이 되고, 명월청풍(明月淸風) 임자도어, 양봉 가객(良朋嘉客)64영접하고, 시주 금가(詩酒琴歌)로 소요함이로다. 사람 팔자 좋거니와 글자의 한 덕이로다. 글 못하는 저 사람은 그 신세 가련하다. 초동 목수(樵童牧豎)65 되었으니 육군의 정병(六軍丁兵) 면할쏘냐. 부신 급수(負薪汲水)66의 생애이러니 고로 품군(雇奴品軍)을 면할쏘냐. 천부적 총명(聰明) 어디다 두고 사면이 장벽(牆壁)67으로 막히게 되었었고. 강쇠(降衰)68하는 기예(技藝) 어디 두고. 산혜(山蹊)69가 모색(茅塞)하는 격이 되었던고. 하는 말도 무미하고 면목(面目)도 가증스럽도다.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거든 호적에 첨구(添口)70 어찌 알며, 봉두난발(蓬頭亂髮)71에 흥측한 모양과 폐의(弊衣)72에 자한(赭汗)이 흐르는 추한 모습, 김립(金笠)73에게나 부끄러움 없는 형세로 다니면서, 온갖 상스러운 일 다 할 적에

무더운 유월 별에 보리타작하기, 비 오는 날 거름 지고 밭에 가기, 그믐날 밤에 물 대기, 서리 내린 아침에 개똥 줍기, 풍한 서열(風寒暑熱)74을 헤아리지 않고 손발에 변지(胼胝)75짓도록 노력한 것이 끼니에 입 구원만이 겨우 되고, 번전(番餞)76 턱은 간데없다. 이정 납정(里丁納丁)77이 달려들어 뺨을 치며 독촉하고, 검사하고 독려하는 풍헌(風憲)78이 달려들어 가슴을 치며 공갈하니, 주물상(酒物床)79을 쉬 변(倅辨)한들 당면창(當面瘡)을 면할 것인가. 어찌하여 자식의 곤방술(棍棒術)80은 술값에 전당잡히고, 박부(剝夫)81를 추출할 때도 없이 마침내 거납(拒納)을 논보(論報)하니 성대(星大)같은 번차 사령(番差使令) 번개처럼 달려들어, 이놈 저놈 질타하며 나입관정(挈入官庭)82을 추리어서, 형틀 동틀83에 결박하고 형장 태장(刑杖笞杖)을 난타하니, 여전약전(如電若電)84의 일장(劔杖) 소리에 삼혼구혼(三魂九魂)이 흩날린다.

부모의 유체(遺體)85도 중하지만 유혈이 임리(淋漓)하여 가련하다. 체계전(遞計錢)86을 얻어서 그 때 곧 모면하고, 서산(西山)에 해지는 저문 날에 고흥 통곡(叩胸痛哭)87하며 돌아오니, 아침저녁 굶은 처자는 아사 동사(餓死凍死)88 거의로다.

수원수구(誰怨誰咎)89하자는 말인가, 이는 곧 글 못 배운 탓이로다.

하느님이 증민(蒸民)90 낳으실 적에 유물 유척(有物有則)하였으니, 이목총명(耳目聰明)91 누가 없으며, 허령(虛靈)하여 깨달음이 누가 없으리오. 어질다는 요순(堯舜)92이나 악하다는 도척(盜跖)이도 일반이요, 성군이신 문무 우탕(文武禹湯)도 서로 마찬가지로 일룡 일저(一龍一猪)93현수(懸殊)하니, 창랑(滄浪)94의 물이 맑든 흐리든 간에 탁영 탁족(濯纓濯足)은 자취(自取)함이로다.

[각주]

- 91) 교언영색(巧言令色), 아유구용(阿諛求容) : 남에게 아첨하는 말과 태도. 아유구용(阿諛苟容). 남에게 아첨하는 구차스러운 모양.
- 92) 협견도소(脅肩諂笑), 소중유소(笑中有刀) : 어깨를 간들거리며 아양을 부려 웃음. ‘도소(諂笑)’는 아첨하여 웃는 것. 소중도(笑中刀). 웃음 속에 칼이 있다는 것으로, 겉으로 웃으면서 속으로 해칠 마음을 품는다는 뜻.
- 93) 초월(楚越), 관포(管鮑) : 중국 전국시대의 초나라와 월나라 사이. 원수와 같이 여기는 사이. 중국의 관중과 포숙아(鮑叔牙). 두 사람의 우정이 딱 두터웠다는 데서 아주 친한 친구 사이의 사귀를 ‘관포지교(管鮑之交)’라 함.
- 94) 해담(諧談) : 해어(諧語). 농담. 희롱하는 말
- 95) 이우보인(以友輔仁) : 벗끼리 서로 격려하며 인덕(仁德)을 닦는 일.
- 96) 협귀(挾貴) : 자기의 부귀를 믿고 남에게 뽐냄.
- 97) 송중자(宋仲子) : 중국 후한(後漢) 때의 송홍(宋弘). ‘중자’는 그의 호임.
- 98) 공문거(孔文學), 망년지우(忘年之友) : 중국 후한(後漢) 말기의 학자 공융(孔融). ‘文學’는 그의 자임. 망년우(忘年友). 노인이 나이에 거리끼지 않고 사귀는 젊은 벗.
- 99) 손저구(孫杵臼) : 중국 춘추시대 진(晉)의 태원(太原) 사람인 공손저구(公孫杵臼). ‘저구(杵臼)’는 원래 절구공이와 절구통을 말하는데, 빈천(貧賤)을 가리지 않고 사귀는 것, 또는 고용인이 서로 갖는 사귀를 ‘杵臼之交’라 함. 문경지우(刎頸之友). 벗을 위해서라면 목이 잘려도 한이 없을 만큼 친밀한 사이.
- 1) 문학(文學) : 지난날, 학예(學藝), 경사(經史), 시문(詩文)을 총칭하던 말. 또는 문자로 기록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이르던 말.
- 2) 금은 옥백(金銀玉帛) : 금, 은, 옥, 비단 따위의 귀한 보물.
- 3) 명주(明珠) : 아름다운 구슬.
- 4) 폐복간(肺腹間) : 폐부간(肺腑間). 마음의 깊은 속.
- 5) 만종록(萬鍾祿) : 매우 많은 녹봉(祿俸).
- 6) 가사(家舍) : 사람이 사는 집.
- 7) 이달(利達) : 입신출세(立身出世). 또는 영달(榮達).
- 8) 자고독서(刺股讀書) : 중국의 소진(蘇秦)이 졸음이 오면 송곳으로 허벅다리를 찌르며 독서하였다는 고사에서, 태만함을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함을 이르는 말.
- 9) 유자(孺子) : 나이 어린 남자.
- 10) 만호후(萬戶侯) : 일만 호의 백성이 사는 영지(領地)를 가진 제후. 즉 곧 세력이 큰 제후.
- 11) 만권서(萬卷書) : 만권시서(萬卷詩書). 매우 많은 책.
- 12) 백가어(百家語) : 중국 전국시대의 제자백가(諸子百家)의 말, 주장 또는 저서. 제자백가서(諸子百家書).
- 13) 육기(六驥) : 마차를 끄는 여섯 마리의 준마(駿馬), 썩 잘 달리는 말).
- 14) 연부역강(年富力強) : 나이가 젊고 힘이 셈.
- 15) 전일(專一) : 마음을 오직 한 곳에만 쓰는 것.
- 16) 장성(壯盛) : 씩씩하고 힘차다.

- 17) 대우(大禹) : 중국 고대의 성왕(聖王)인 우왕(禹王)을 높이어 이르는 말.
- 18) 분음(分陰) : 촌음(寸陰)보다도 짧은 시간.
- 19) 공부자(孔夫子) : 중국 춘추시대의 학자요, 사상가인 공자(孔子, 552-479 B.C), 이름은 구(丘)에 대한 높임말.
- 20) 대송(大宋) : 중국 송(宋) 나라에 대한 미칭(美稱).
- 21) 사략(史略) : 십팔사략(十八史略)의 약칭. 중국 원나라의 증선지(曾先之)가 중국 태고(太古)로부터 송나라 말기까지의 사실(史實)을 압축하여 기록한 책.
- 22) 중용(中庸) :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가 지었다는 것으로, 중용의 덕과 인간의 본성인 성(誠)에 대한 설명임. 중국의 유교 경전으로 사서(四書)의 하나임
- 23) 주역(周易) : 역경(易經). 유교 경전 가운데 육경(六經)의 하나.
- 24) 좌전(左傳) : 좌씨전(左氏傳)의 준말이요, 좌씨전(左氏傳)은 또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준말임.
- 25) 초사(楚辭) : 중국 초(楚)나라 굴원(屈原)의 사부(辭賦)를 주로 하고, 그의 작품을 이어받은 제자 및 후인의 작품을 모은 16권의 책. 본 가사 원문에서의 “楚詞”는 “楚辭”의 잘못 표기임.
- 26) 이백(李白) : 중국 당(唐)나라의 시인(701-762). 자는 태백(太白), 호는 청련거사(靑蓮居士), 또는 주선옹(酒仙翁). 시성(詩聖) 두보(杜甫)에 대하여 시선(詩仙)이라 일컬어지고, 두 시인을 함께 이두(李杜)라고도 칭하였음
- 27) 정숙(精熟) : 사물에 정통하고 능숙한 것.
- 28) 구법(句法) : 시문(詩文)의 구(句)를 만드는 방법.
- 29) 변(辯) : 한문학에서 문체의 한 가지. ‘분별한다는 뜻’으로, 옳고 그름 또는 참되고 거짓됨을 가리는 목적으로 씌어진 글에 붙임.
- 30) 수용산출(水湧山出) : 시문을 짓는 재주가 뛰어남.
- 31) 거벽(巨擘) :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서 남달리 뛰어난 사람.
- 32) 감시(監試) : 생원 진사.
- 33) 생원(生員) : 조선시대에 소과(小科)인 생원과에 합격한 사람
- 34) 알성급제(謁聖及第) : 알성과(謁聖科)에 합격함. 또는 그 사람.
- 35) 창방(唱榜) : 방목(榜目,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성명을 적은 책)에 적힌 과거 급제자의 이름을 부르는 일.
- 36) 홍패(紅牌) : 문과(文科)의 회시(會試)에 급제한 사람에게 그 성적의 등급, 성명을 기록하여 주던 붉은 증서.
- 37) 청개(靑蓋) : 의장(儀仗)의 한 가지. 무과(武科)에 장원한 사람에게 풍류와 함께 내리어 유가(遊街)할 때에 앞에 세우고 다니게 하던 특례가 있었음.
- 38) 악기 창부(樂妓倡夫) : 노래하는 기생과 남자 광대.
- 39) 장안대도(長安大道) : 서울의 큰 길, 큰 거리.
- 40) 삼현(三絃) : 세 가지 현악기. 곧, 거문고, 가야금, 향비파.
- 41) 무불치하(無不致賀) : 애써서 잘했다고 치하하지 아니함이 없음.
- 42) 삼일 마두(三日馬頭) : 삼일 동안 말머리를 앞세우고 삼일유가(三日遊街)하던 일.
- 43) 영친(榮親) :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
- 44) 한림(翰林) : 조선시대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의 별칭. 정 9품의 관직.

- 45) 통청(通淸) : 청관(淸官)이 될 자격을 얻는 것.
- 46) 당록(堂錄) : 도당록(都堂錄)'의 준말. 조선시대에 홍문관(弘文館)의 교리(校理),수찬(修撰) 등을 임명하기 위한 2차 선거 기록. 의정부에서 작성하였던 문서임. 가사의 원문에서 '堂祿'이라 한 표기는 '堂錄'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임.
- 47) 당상(堂上) : 조선시대 정 3품인 명선대부(明善大夫),봉순대부(奉順大夫),통정대부(通政大夫),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의 벼슬.
- 48) 육조(六曹) : 고려 말기와 조선시대에 주요한 국무를 처리하던 여섯 관부(官府). 곧, 이조(吏曹),호조(戶曹),예조(禮曹),병조(兵曹),공조(工曹),형조(刑曹)..
- 49) 권마성(勸馬聲) : 임금이 말이나 가교(駕輶)를 타고 거동할 때에, 또는 봉명 고관(奉命高官)이나 수령(守令) 및 그 부인이 말이나 쌍교(雙輶)를 타고 행차할 때에 위세를 더하기 위하여 앞에서 아졸들이 목청을 길게 빼어 부르던 소리.
- 50) 사모(紗帽) : 고려 말부터 조선 말기에 걸쳐 문무관이 상복(常服)에 착용하던 모자. 검은 사(紗)로 만들며, 뒤에 뿔이 2개 있음. 앞에 든 가사의 원문에서 '紗冒'라 한 표기는 '紗帽'의 착오로 보임
- 51) 분백대록(粉白黛綠) : 얼굴에 흰 분을 바르고, 눈썹을 검푸르게 칠한다는 뜻으로, 여인의 고운 화장. 또는 곱게 화장한 미인.
- 52) 미주 가효(美酒佳肴) : 맛이 좋은 술과 맛 좋은 안주.
- 53) 식전 방장(食前方丈) : 사방 열 자의 상에 잘 차린 음식이라는 뜻으로, 호화롭게 많이 차린 음식을 이르는 말
- 54) 관풍찰위(觀風察僞) : 관풍찰속(觀風察俗)으로 거짓을 밝히는 것.
- 55) 내직(內職) : 서울 안에 있는 각 관아의 벼슬.
- 56) 우의정(右議政) : 조선시대 의정부의 정 1품 벼슬. 좌의정의 아래 벼슬.
- 57) 영의정(領議政) : 의정부의 으뜸 벼슬. 내각을 총괄하는 최고의 직위임.
- 58) 풍공(豐功) : 매우 큰 공훈(功勳).
- 59) 봉조하(奉朝賀) : 조선조 세조 때에 봉조청(奉朝請)을 고친 이름. 녹봉 절약을 위하여 급록의 기준이 하향 조정됨.
- 60) 사궤장(賜几杖) : 늙어서 벼슬을 물러나는 대신이나 중신에게 임금이 안석(案席)과 지팡이를 내려주던 일
- 61) 기로소(耆老所) : 조선시대에 나이가 많은 정 2품 이상의 문신을 예우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구. 왕 및 조정 원로의 친목 및 연회 등을 주관하였음.
- 62) 강호 임천(江湖林泉) : 강과 호수, 그리고 수풀 속에 있는 샘.
- 63) 황앵(黃鶯) : 꼬꼬리.
- 64) 양봉 객(良朋嘉客) : 좋은 친구와 아름다운 나그네.
- 65) 초동목수(樵童牧豎) : 땔나무를 하는 아이와 가축을 치는 아이.
- 66) 부신(負薪) : 땔나무를 등에 지는 것. 빈천한 태생.
- 67) 장벽(牆壁) : 벽장. 담과 벽.
- 68) 강쇠(降衰) : 문화 도덕 따위가 점점 쇠약해지는 것
- 70) 첨구(添口) : 남의 말에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것.
- 71) 봉두난발(蓬頭亂髮) : 봉발(蓬髮). 삭대강이같이 마구 흐트러진 머리털.

- 72) 폐의(弊衣) : 순의(鶉衣). 낡아 해진 옷.
- 73) 김립(金笠) : ‘김삿갓’을 한자식으로 부르던 이름. 방랑시인(放浪詩人) 김병연(金炳淵, 1807-1863)이 젊어서 삿갓을 쓰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해학과 풍자에 넘치는 시를 많이 읊고 다녔기 때문에 속칭되던 이름임.
- 74) 풍한(風寒) : 감기.
- 75) 변지(胼胝) : 더께, 굳은살
- 76) 번전(番錢) : 조선시대 오위(五衛)의 군졸이 번포(番布) 대신에 바치던 돈.
- 77) 이정(里丁) : 동리 안의 장정(壯丁).
- 78) 풍헌(風憲) : 이조시대 향소직(鄉所職)의 하나. 면(面)이나 이(里)의 일을 맡아보았음.
- 79) 주물상(晝物床) :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에 간략하게 차려 먼저 내오는 음식상. 가사 원문에서의 “酒物床”은 “晝物床”의 오기로 판단됨.
- 80) 곤방술(棍棒術) : 곤방의 기술.
- 81) 박부(剝夫) : 박민(剝民)을 일삼던 사나이.
- 82) 나입(拏入) : 죄인을 수사 기관 등 관계 기관에 잡아들이는 것.
- 83) 동틀 : 형틀. 죄인을 심문할 때에 앉히던 형구(刑具).
- 84) 여전약전(如電若電) : 번개처럼 매우 빠름을 이르는 말.
- 85) 유체(遺體) : 부모가 끼쳐 준 몸. 곧, 자기 몸.
- 86) 체계전(遞計錢) : 체겇돈. 체계(遞計)로 쓰는 돈.
- 87) 고흥 통곡(叩胸痛哭) :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 곧, 매우 분통해 함.
- 88) 아사 동사(餓死凍死) :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것.
- 89) 수원수구(誰怨誰咎) :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랴의 뜻으로, 남을 원망하거나 탓할 것이 없음을 이르는 말.
- 90) 증민(蒸民) : 만민(萬民). 모든 백성.
- 91) 이목총명(耳目聰明) : 귀와 눈의 관능(官能)이 총명함.
- 92) 요순(堯舜) : 중국 고대의 요임금과 순임금.
- 93) 일룡 일저(一龍一豬) : 하나는 용이 되고 하나는 돼지가 된다는 뜻으로, 학문의 유무(有無)로 뚜렷한 현우(賢愚)의 차가 생김을 이르는 말.
- 94) 창랑자취(滄浪自取) : 칭찬을 받거나 욕을 먹거나, 모두가 자기 할 탓이라는 말.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